

## 텍스트언어학과 언어교육

\* 이 자료는 텍스트언어학회 학술 발표 대회(2001. 5. 19. 서울대)에서 발표된 내용임.

### 쓰기교육과 읽기교육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동향

박영목(홍익대학교)

#### 1. 서론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언어교육이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제된 언어교육이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잘 정제된 언어교육이론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 요인과 기능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교육 이론은 쓰기교육 이론에 비해 훨씬 정치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읽기는 이해와 연관되는 인간의 인지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자와 인공지능공학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들 분야의 학자들은 독해, 이해, 심리적 표상, 기억, 정보의 재생, 학습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주로 읽기활동과 연관되는 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읽기 과정 모형,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읽기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차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풍성하고도 체계적인 읽기 이론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 읽기교육 이론 또한 그 기초를 튼튼하게 수립하여 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쓰기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인 쓰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쓰기교육 이론은 그 이론적 체계와 학자들 사이의 합의 면에서 읽기교육 이론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텍스트 생산 현상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은 주로 텍스트 이해 모형을 기저로 하여 쓰기 이론을 개발하여 왔으며, 수사학자와 작문학자들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 나름의 쓰기이론과 쓰기교육 이론을 개발하여 왔다. 쓰기 현상 및 쓰기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배경, 관심 분야, 연구 목적과 방법 등의 다양성과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쓰기와 쓰기교육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텍스트 생산의 과정과 결과는 물론 텍스트 생산과 연관되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 생산 모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와 결과의 문제를 텍스트 생산의 사회적 맥락의 문제와 결부시켜 총체적이고도 설득력을 지닌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작문이론 및 작문교육이론 분야의 학자들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언어학, 인지심리학, 수사학, 작문학 분야의 학제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이삼십년 동안 텍스트 분석연구는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응용언어학, 인지심리학, 인공지능공학 분야의 연구에 힘입어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텍스트 분석연구는 전통적으로 성경해석학, 수사학, 문체론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성경해석은 주로 번역의 문제이었고 번역의 과정에서 문법보다는 담화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그 뿌리를 둔 수사학적 전통과 중세의 문체론 역시 현대의 담화 분석 및 텍스트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Berlin, 1984; Crowley, 1989). 이러한 전통 위에서 텍스트분석학은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de Beaugrande & Dressler, 1981). 유럽에서는 텍스트 분석학이 중요한 학문 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과는 달리 북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의 주도적 언어학 이론은 텍스트 분석학의 발달을 방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언어학과 반생명문법의 배경을 지닌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은 담화 분석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Brown과 Yule(1983), Halliday(1994) 등의 학자들은 담화의 구조적 특성을 탐구해 왔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텍스트의 특성은 물론 그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텍스트는 다원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일원적 분석만으로는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할 수 없다. 어떤 언어든 언어학적 변이 양상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측면에서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텍스트는 가능성, 실제성, 적절성, 수행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현실 언어의 구조체이다. 텍스트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구조에 입각한 시작과 결말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Halliday, 1978). 텍스트의 시작과 결말은 일련의 형식적인 조직 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담화의 분절 가능성, 실제성, 적절성, 수행성 등의 특성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될 때 산출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쓰기교육 분야와 읽기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연구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텍스트 연구와 쓰기 교육

언어 사용의 일차적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텍스트 생산 활동으로서의 쓰기는 독자와의 의사소통 시도를 표상한다. 필자는 쓰기 활동의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의도와 목적을 지니게 되며, 이들을 언어적, 심리적, 사회적 원리에 따라 구조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정보성, 정확성, 관련성, 명료성, 체계적 해석 가능성 등과 연관되는 Grice의 격률을 지킨다든지, 입장, 상황, 의도, 태도 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관습을 지키게 된다. 또한 필자는 정보의 새로움, 가능성, 출현 비율 등을 나타내기 위한 기제를 이용한다든지 스키마와 스크립트, 프레임 등과 같은 대단위 조직 유형을 예상케 하는 인지 구조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점점하게 된다. 텍스트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론은 쓰기의 조직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리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쓰기이론 및 쓰기교육이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언어학적 연구의 성과에 대해 Grabe와 Kaplan(1996)이 정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쓰기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쓰기이론과 연관된 텍스트 연구는 표면적 구조 중심 연구와 내적 구조 중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표면적인 문장 수준에서의 연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1. 표면적 구조 중심의 텍스트 연구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Chomsky 학파의 영향으로 쓰기 능력의 발달을 드러내는 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핵심적 구조를 표지시켜 T-unit(하나의 주절과 그에 딸린 모든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통사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삼았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Hunt(1965)의 '삼 개 학년(4, 8, 12)의 수준별 문법 구조'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생산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매 T-unit별 단어 수, 매 문장별 T-unit 수, 매 T-unit별 절의 수, 매 절별 단어의 수 등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unit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Hunt식의 연구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측정의 신뢰도 또한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집단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어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집단 구성원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illocks, 1986, de Beaugrande 1984, 1985).

Hunt 식의 연구 결과는 쓰기 지도에 있어서 문장 결합 훈련을 성행하게 만들었다. 문장 결합 훈련은 그 배경 이론이 지닌 결합에도 불구하고 언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de Beaugrande, 1984; Hillocks, 1986). 문장 결합 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사론적 형식에 대한 의식적인 집중을 하게 하고, 고쳐 쓰기를 위한 체계적인 기법을 제공하며, 문장 구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통사론적 유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며, 문장 구성의 유창성과 빈도를 높임과 동시에 문장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문장 내 정보 부하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하며, 정보의 덩이화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통사론적 단계와 정보 처리의 다른 단계를 통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복잡성이나 통사적 성숙도가 텍스트 생산 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장 종결 단위와 문장 결합에 대한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텍스트 생산 능력의 발달과 연관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Hillock, 1986; Witte and Cherry 1986). 작문 연구가들과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텍스트 생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형용사의 사용, 명사구의 복잡성, 자유 수식어(free modifier)의 사용, 부사구의 사용, 관계절의 사용, 한정 부사절의 사용, 문체론적 어순의 다양성, 피동구문의 사용, 명사구 주어의 복잡성, 시제와 양태의 사용 범위 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학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상과 같은 통사론적 특성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통사론적 특성을 지도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질이 높아진다는 확실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다. 작문 연구 분야에 있어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텍스트 생산의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연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작문 연구의 한 유형으로서 자료 분석 연구(Corpora research)를 들 수 있다. 자료 분석 연구가 지닌 문제점은 자료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료 분석 연구는 빈도수의 계산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원성을 지닌 텍스트의 특성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자료 분석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서 Biker(1988, 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다중회귀분석과 요인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주요 측면을 밝혀 내었다. Biker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텍스트 장르는 일련의 표면 언어 자질의 공기 유형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Biker의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Grabs(1992)는 31개의 동사, 어휘, 결속성 변인을 중심으로 15가지 형식으로 된 150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여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여섯 가지 요인 중에서 네 가지 요인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었다. Grabs가 밝혀 낸 네 가지 측면은 서사적 맥락과 비서사적 맥락, 상호작용 지향성과 정보 지향성, 추상적 논리적 정보와 상황적 정보, 객관적 양식과 표출적 양식 등의 측면이었다.

텍스트의 구조화와 작문 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프라그 학파의 초기 연구에서 비롯된 정보화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 바탕을 두었는데 고립된 문장이나 무선적으로 연결된 문장이 아닌 결속성을 지니고 연결된 문장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 사이의 관계, 텍스트가 존재하는 언어외적 상황,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적 기능, 텍스트 생산자나 수용자의 동기와 지식과 의식의 상태에 관한 텍스트 생산자의 명시적인 가정 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구조에 관한 연구의 예로서 문장의 화제 구조, 화제 개발, 화제 구조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정보 사이의 관계 유형으로서 'given-new', 'topic-comment', 'theme-rhem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텍스트 내의 정보 배열과 연관되는데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정보의 구조화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연구인 문장의 화제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담화의 화제, 문장의 화제적 주어, 통사적 주어, 문장의 시작 요소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였다. 화제의 계속성에 대한 연구는 담화에 있어서 화제 전개에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화제 구조 분석연구는 작문의 질적 차이와 고쳐쓰기 전략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표면적 구조 중심의 텍스트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결속성 연구를 들 수 있다. 텍스트의 결속성 연구는 텍스트의 표면 형식을 연결짓는 데 이용되는 체계적 장치, 즉 텍스트를 결합하는 기저 관계에 대한 표면적 장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Halliday & Hasan, 1976, 1989). 지시, 대치, 생략, 접속, 어휘 반복, 포함, 동의와 반의, 병치 등의 장치는 텍스트의 표면 구조를 연결짓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결속성과 일관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텍스트의 표면 형식이 텍스트 기저의 일관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어의 구성적 사용에 관한 기능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Halliday와 Hasan은 텍스트의 표면 구조가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표면 형식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Singer, 1990).

## 2.2. 내적 구조 중심의 텍스트 연구

지난 20여년 동안 작문 연구 분야에서는 텍스트 구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Grabe와 Kaplan(1996)은 텍스트 구성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통사구조, 의미도식, 결속표지, 장르와 조직, 어휘형식과 관계, 텍스트 구조의 문체론적 측면, 지식기저 등을 제시하고, 이들 각 요인들은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며, 각 요인들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를 표면적 구조와 내적 구조로 구분하고, 이들 각 구조를 문장 수준 측면, 텍스트 수준 측면, 대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텍스트 생산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을 단순화 시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텍스트 구성 모형 (Grabe & Kaplan, 1996 참조)

작문 연구 분야에서는 <표 1>에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일관성 요인과 텍스트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일관성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작문연구에서 중시되어 온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과 언어심리학 분야의 학자들은 독자가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방식과 필자가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일관성의 일정 부분은 텍스트의 구조 표지가 아닌 독자의 해석 체계에 구성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담화분석학 분야의 학자들도 텍스트의 일관성은 텍스트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한 구조화된 지식, 즉 스키마, 스크립트, 프레임 등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Brown & Yule, 1983). 일관성의 비언어학적 기저에 대한 주장은 화용론 분야의 상관성이론가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Sperber & Wilson, 1986). 상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메시지의 일관성은 상관성의 원리, 즉 인간 존재는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정보와 다른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상관 관계를 찾게 된다는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구조 자체가 텍스트의 일관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van Dijk & Kintsch, 1983).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은 텍스트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고 조직하는 방식과 연관되는 측면이다.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필자는 독자, 주제, 상황, 세계 등에 대해 일정한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와 입장 또한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Halliday, 1985). 이러한 이유로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은 대인적 측면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Chafe(1982)는 포섭과 이탈, 통합과 분절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iker(1988)는 텍스트의 기저에 내재하는 주요 측면으로서 수사학적 창안, 상호작용성, 참조성, 맥락의 직접성, 추상성, 정교성, 근거, 장르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각 측면은 필자의 다양한 목적과 상황적 요구에 따라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의 작문이론에 의하면 텍스트의 구성 방식은 재생산, 대화, 협상의 세 가지 관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Flower, 1994). 필자는 기존의 혹은 이용 가능한 의미를 재생산함으로써 텍스트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논쟁의 소지가 많다. 읽기에 대한 구성주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자는 다음 세 가지 수단, 즉 텍스트와, 문화적 바탕에 기초한 기대에 강한 영향을 받는 과정과, 기존지식을 통하여 정보를 선정하고 조직하고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한다. 다른 의미를 재생산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일은 학습, 텍스트 간 전이, 문화의 전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의 구성을 재생산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실체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인가? 텍스트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생산되는 것인가? 텍스트와 간텍스트는 독자와 필자가 실제로 구성하는 의미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재생산 이론은 의미 구성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재생산이 일원적인 의사소통임에 비해 대화와 협상은 이원적인 의사소통이다. 사회적 대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절박한 동기나 일정한 논리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자격을 지닌 개체간의 비규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된다. 사람들은 집단적 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모든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갖는 기능은 대화에 의해 기술되는 자유롭고도 협동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대화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인지와 주체성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면이 있다. 대화로서의 의미 구성 결과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마음속이나 개인의 독특한 표상에 있지 않고 상호작용의 순간이나 대화의 순간 혹은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된다.

텍스트 구성의 주체가 없는 대화주의 모델은 비교적 비규제적 과정, 즉 의미가 일련의 가능성의 집합 내에 존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배양되고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대화로부터 산출되는 의미는 공유된 이해의 침전물이며 공유된 상식의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상적 의미는 어떤 규제적 힘에 직면하여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노력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협상적 의미의 구성 과정은 필자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필요 조건에 직면했을 때 작동한다. 첫째,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압력을 받거나 제약이나 대안을 변환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이다. 둘째, 필자가 문제가 있는 인지적 수사론적 상황을 관리하거나 협상할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릴 때이다. 협상은 행위를 형성하는 복수의 소리 혹은 어떤 종류의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협상을 통하여 구성되는 의미는 잠정적인 해결책이며 다양한 소리에 대한 반응이다. 복수의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협상적 의미는 소리로 드러난 언어나 아이디어의 이질적 혼성물 이상의 것이다. 협상적 의미는 복수의 목표와 제약과 전략과 언어를 다룸으로써 얻어진 구성물이다. 아이디어와 의도와 언어에 대한 협상적 의미 망은 형성적 힘에 대한 단순 반응으로써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 힘에 대한 선택적 반응으로써 조성되는 것이다. 잠정적 해결책으로서 협상적 의미는 어떤 소리들을 밝히거나 그 소리들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거나 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변형하거나 종합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협상의 범위 내에 있는 소리들에 대해 반응한 결과이다. 잠정적 해결책으로서의 협상적 의미는 텍스트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해결책과 일관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 그 해결책은 미해결의 갈등이나 모호성을 잠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서는 억압되었던 소리가 다른 시점에서는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

### 3. 텍스트 연구와 읽기교육

읽기연구 및 읽기교육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텍스트 의미 구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박영목, 1996)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 텍스트 의미 구성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Goldman & Rakestraw(2000)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1.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텍스트의 구조는 텍스트의 내용을 조직하는 데 사용된 기본적인 골격 또는 개요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구조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언어 이해 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물론 실천적 연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개발자는 잘 조직되고 일관성을 갖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구조에 대한 연구는 서사구조 텍스트와 설명구조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사 구조에 대한 연구로써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는 Rumelhart(1975)의 이야기 문법이다. Rumelhart의 이야기 문법은 그 후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으로 가다듬어졌다. 이야기 문법을 이용한 서사 구조의 기억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야기 문법에서 규정한 사건의 순서는 실제 이야기의 사건 순서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잘 구성된 이야기는 이야기 문법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셋째, 잘 구성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4세 내지 5세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설명구조 텍스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Kintsch(1974)와 Meyer(1975)를 들 수 있다. Meyer는 서사적 텍스트의 구조를 최상위 구조, 대단위 명제, 소단위 명제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최상위 구조와 대단위 명제는 수사학적 관계로써 설명하고, 소단위 명제는 격 관계로써 설명하였다. 최상위 구조와 대단위 명제는 텍스트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능한 독자는 독해가 끝난 다음에 이들 구조를 기억 속에 저장하는 일이 많다. Bereiter(1978)는 아동들의 독해 전략이 텍스트의 구조 유형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동들은 구체적 수준의 서사적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추상적 수준의 설명적 텍스트의 순으로 독해 전략을 학습해 나간다는 것이다. Spiro와 Taylor(1980)는 텍스트 구조의 복합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기저 구조, 텍스트의 친숙성, 아이디어의 응집성, 아이디어의 복잡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능한 독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스키마를 활용하여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구조화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아이디어들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구조를 자신의 머리 속에 표상하게 된다. 텍스트의 구조를 표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텍스트의 구성 양식과 구성 수준, 초점, 구조 유형, 정교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텍스트의 구성 양식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왔다. 텍스트의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고의 유형에 따른 내용의 전개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와 대조, 유추, 논증, 서사, 과정, 인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텍스트의 구성 수준 역시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전통적 수사학에서는 텍스트, 문단, 문장, 단어 등으로 구 수준을 구분하였다. Meyer(1975)는 최상위 수준, 대단위 명제 수준, 소단위 명제 수준 등으로 텍스트의 구성 수준을 구분하였다. Meyer는 텍스트의 각 구성 수준에 텍스트의 구성 양식이 내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텍스트의 화제 초점은 우리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라고 물었을 때, '무엇'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문어 텍스트나 구어 텍스트를 막론하고 화제의 범주를 대상, 연속성, 아이디어 등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을 화제로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연속성을 화제로 했을 때는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화제로 했을 때는 어떤 의견이나 문제에 대하여 설득하거나 논증할 수 있다.

텍스트 구조 유형은 담화의 장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텍스트의 구조에는 공식적인 유형의 구조와 비공식적인 유형의 구조가 있다. 공식적인 유형이란 담화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을 말하고, 비공식적인 유형이란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에 의하여 독특하게 사용되는 유형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맹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유형의 텍스트 구조에 친숙해야만 한다. 텍스트의 구조 유형에는 친숙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덜 친숙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는 텍스트의 목적이나 전개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교화의 정도는 텍스트의 구성 수준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필자가 무엇에 관하여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는 화제의 초점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작문 목적과 예상 독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했다면, 그는 텍스트의 구조 유형을 설정한 것이다. 화제 초점과 구조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필자는 어휘 선택에서 비롯하여 문장 작성, 문단 작성, 텍스트의 각 부분 작성의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자는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교화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읽기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설명 구조 텍스트의 가독성(readability)에 관심을 가져 왔다. 교과서나 학생용 학습 자료를 만들 경우에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텍스트를 만들거나 선정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가독성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Klare, 1984). 첫째, 단어의 사용 빈도를 단어의 난이도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둘째, 쉽게 측정이 가능한 문장 구성 요소들을 변인으로 한 복합 회귀 분석법을 통하여 가독성 공식을 만들었다. 셋째, 텍스트의 내용이나 조직 혹은 의미 등의 변인들을 토대로 하여 만든 가독성 공식은 활용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넷째, 가독성 공식은 주로 텍스트의 학년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학년별 교과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독성 공식이 널리 활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도 수많은 가독성 공식이 개발되었는데, 단어의 빈도, 난이도, 문장의 길이, 음절의 수 등과 같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을 바탕으로 한 공식이 대부분이다. 다음에서는 이들 공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공식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① Bormuth (1975)의 가독성 공식

- 텍스트의 난이도 =  $1.09 - (.106 \ 1/w) - (.0036 \ 1/s) + [.000002 \ (1/s)^2]$   
(1/w : 25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단어별 평균 글자 수)  
(1/s : 25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문장별 평균 글자 수)

#### ② Liau, Bassin, Martin, Coleman (1976)의 가독성 공식

- 추정 cloze 백분율 =  $43.49 - .10 \text{ Let} + 1.22 \text{ Sent} + .67 \text{ 1-Syl} - .44 \text{ Cord Conj}$   
(Let : 10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글자 수)  
(Sent : 10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문장 수)  
(1-Syl : 10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음절 수)  
(Cord-Conj : 100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대등 접속어 수)

#### ③ Harris와 Jacobson (1982)의 가독성 공식

- 추정 원점수 =  $.245$  (어려운 단어의 백분율) +  $.160$  (평균 문장 길이) +  $.642$

#### ④ Flesch Reading Ease Formula (1948)

- 학년 수준 =  $.39$  (단어 수/문장 수) +  $11.8$  (음절 수/단어 수) -  $15.59$

#### ⑤ CEEB (대학 입학 시험 위원회)의 가독성 공식

- 가독성 (cloze 점수 R) =  $.886593 - .083640 \ (LET/W) + .161911 \ (DLL/W)^3 - .021401 \ (W/SEN) + .000577 \ (W/SEN)^2 - .0000005 \ (W/SEN)^3$

- o 독서 능력 (DRP) = (1-R) 100
- (LET : 텍스트의 글자 수)
- (W : 텍스트의 단어 수)
- (DLL : 텍스트의 단어들 중에서 Dale Long List에 들어 있는 단어의 수)
- (SEN) : 텍스트에 있는 문장의 수)

대부분의 가독성 공식은 독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변인들만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타당도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적은 변인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단어의 난이도와 문장의 길이만으로도 텍스트의 이해도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독성 공식은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3.2. 텍스트 의미 구성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연구

문어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심리적 표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개별 단어와 구절들의 의미를 처리해야 하고, 텍스트 내적인 정보와 텍스트 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개별 단어와 구절들을 연결짓고 통합하여야 한다.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은 텍스트 중심 정보처리에는 물론이고 기존 지식 중심 정보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 중심 정보처리는 텍스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구성하기 위한 기저로서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활용하는 인지작용이다. 여기서 내용은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개별 단어 혹은 텍스트의 부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구조는 단어와 문장들의 배열 순서, 개별 문장의 기능, 텍스트 전체의 조직 방식을 드러내는 수사학적 혹은 시각적 장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제시되는 구조적 단서의 유형에는 어순, 텍스트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명시적 단서, 담화 표지 등이 있다. 텍스트 중심 정보 처리에 있어서 텍스트 구조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의 구조적 단서는 독해의 과정에서 중심 내용의 식별과 기억에 도움을 준다. 둘째, 텍스트의 표면구조와 기저 구조 사이의 평행성은 독해 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텍스트의 구조 표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낼수록 기억과 학습이 증진된다.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은 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는 텍스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 중심 정보처리는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내용 및 구조와 연관되는 독자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 인지작용이다.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되는 중요한 기존 지식의 유형에는 문장의 구성 방식, 문단의 조직 방식, 텍스트 장르별 조직 방식, 수사학적 구조 등이 있다.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되는 기존 지식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능한 독자일수록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상하는 구조와 다른 구조를 만나게 되면 정보처리는 장애를 받게 된다. 둘째,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장르의 독서경험, 연령, 교육 수준 등과 밀접한 상관을 맺는다. 셋째, 장르 구조에 대한 독자의 의식을 강화할수록 학습이 증진된다.

텍스트 중심 정보처리와 기존지식 중심 정보처리에 있어서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은 상호작용적 역할을 한다.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니는 효과는 독자가 독해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구조적 정보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독자가 텍스트의 구조적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구조적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독자가 일관성과 적절성을 지닌 심리적 표상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4. 결론

언어 연구의 세계적 동향은 문장 수준 연구에서 텍스트와 담화 수준 연구로의 대전환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de Beaugrande, 1997).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은 인접 학문영역, 즉 기호학, 문화기술학, 사회인류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정보처리학, 컴퓨터과학 분야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텍스트 연구 분야는 학제적 연구 분야에서 학문 영역 간 경계를 초월하는 초학문영역적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점점 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계하는 일은 대단히 가치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치있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북미지역의 쓰기교육 분야와 읽기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연구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는 작업밖에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국어교육이 굳건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텍스트언어학을 이론적 기저로 한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은 학생들의 국어활동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이고, 국어활동능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텍스트의 이해 능력과 생산 능력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영목, (1996), 국어이해론, 법인문화사.
- Berlin, J. (1987), *Rhetoric and reality: Writing instruction in American colleges, 1900-1985*.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Bak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England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D. (1995), *Cross-Linguistic patterns of register variation*. Cambridge, England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Beaugrande, R. (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NJ: Ablex.
- de Beaugrande, R. (1984), *Text production: Toward a science of composition*. Norwood, NJ: Ablex.
- de Beaugrande, R. and W.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England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82), *Integration and involvement in speaking, writing, and oral literature*. In D. Tannen (ed.) *Spoken and written language*. Norwood, NJ: Ablex. 35-54.

- Crowley, S. (1989), *An introduction to deconstruction*.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Flower, L. (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Goldman, S. R. & Rakestraw, Jr. (2000), *Structural aspects of constructing meaning*. In M.L.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3*. NJ: LEA.
- Grabe, W. & Kaplan, R.B. (1996),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New York: Longman.
- Grabs, W. 1992. *Applied linguistics and linguistics*. In R.B. Kaplan (eds) *Introduction to applied linguistics*. Wokingham, England and MA: Addison-Wesley. 35-58.
- Halliday, M.A.K. (1978), *Language as a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and Bost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 (1994),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and value in the grammar of scientific discourse, with reference to Charles Darwin's The origin of species*. In M. Coulthard (ed.) *Advances in written text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36-56.
- Halliday, M.A.K.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Halliday, M.A.K. and R. Hasan. (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ocks, G. (1986), *Research on written composition*.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Research in English.
- Hunk, K. (1965), *Grammatical structures written at three grade levels*.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Singer, M. (1990), *Psychology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ntence and discourse processes*. Hove, Sussex and Hillsdale, NJ: L. Erlbaum.
- Sperber, D. and D. Wilson. (1986), *Relevanc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nd W. Kintsch.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Witte, S. and R. Cherry. (1986), *Writing processes and written products in composition research*. In C. Cooper and S. Greenbaum (eds) *Studying writing.- Linguistics approaches*. London and Newbury Park, CA: Sage. 112-53.